

대졸
여사원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40분간 폭행당해

동료직원들 방조한듯한 분위기 더 충격

한 여사원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입사 동기생으로부터 40여분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2시20분경 종로구 당주동 128-27번지 동원빌딩 701호 (주)건덕주택 (회장 김형열) 사무실내에서 이 회사 공채 1기생인 강모 (24) 씨가 동료직원 15명 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대영 (27) 씨로부터 사소한 시비끝에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특히 남녀동료들이 40여분간 여사원에게 무자비하게 가해진 폭행을 보고도 적극 뜯어말리기보다 방조한듯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폭행사건의 발단은 이날 12시경 사장과 상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자금사정 악화로 11일째 밀린 6월분 급여를 뒤늦게 받으면서 직원들이 “상여금까지 받자”는 문제로 회합을 하려던 중 일어났다. 강 씨는 폭행을 당한 뒤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는데 이 고소장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전화통화로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김 씨가 “빨리 안들어오고 뭐하냐”며 무하 직원 다루듯 큰 소리를



▲ 회사의 분위기가 봉건적일수록 여직원들에 대한 상사나 동료의 폭행은 자주 일어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여성동료를 ‘보조자’로 인식하는 남성의식 큰 문제

치자 시비가 일면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일로 기분을 상한 강 씨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20분 가량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 씨가 강 씨에게 폭언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

강 씨는 비서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달려든 김 씨에게 강제로 안경을 벗기운 채 구둣발로 마구 채이고 맞아 한차례 책상위에 쓰러졌다가 주방에 피신한 뒤 다시 두번째 폭행을

당했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안경을 썼던 오른쪽 눈두덩이가 심하게 긁히는 상처를 입었으며 구둣발에 채여 오른쪽 무릎과 왼쪽 허벅지에 깊게 긁힌 상처와 멍이 드는 피해를 입었다. 또 강 씨는 이날 사건발생 후 김 씨를 파출소에 고소하고 오던 중 코피를 쏟고 심한 구토 증세까지 보였다.

피해자 강 씨와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강 씨의 부모는 “어떻게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무려 40분씩이

나 무자비하게 때릴 수 있느냐. 몇몇 직원들이 말렸지만 진짜 김 씨의 폭행을 말리려했다면 두차례씩 폭행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인 강 씨는 “경찰서에 갔을 때도 다들 웬만하면 참으라거나 여자가 너무 고집을 피워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편견에 마음이 아파 신문사에도 알릴 결심을 했다”며 “폭행후 김 씨와 회사 동료들이 모두

술을 마시러 나가고 병원에 가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던 태도에 폭행 못지 않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여사원들 중에 유일한 대졸자로 급여체불 등으로 사원들이 수차례 모임을 가질 때 컴퓨터 대학에 다니느라 회합에 주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폭행을 고소하라”고 했던 단 한명의 고졸자 여사원을 빼고는 대부분의 여직원들은 수수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나 “참으라”는 발언 등 남자 직원들처럼 폭행사건 조사에 필요한 증인 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상담했던 여성민우회 윤정숙 노조사업 부장은 “보통 1달에 3~4건 업무상 벌어지는 폭행사건을 접수한다. 여사원을 동료보다는 보조자로 생각하는 남자직원들이 흔히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찌검을 하거나 재떨이를 던지는데 강 씨의 경우는 가장 심한 폭행을 당한 사례”라고 밝혔다. 보통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직원들이 보이는 반응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같은 약자

입장의 여성이면서 별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 두가지로 나타난다는 것.

윤 부장은 “강 씨의 경우 회합에 자주 빠지고 대졸자로서 커피 심부름같은 것은 하지 말자던 평소의 태도가 고졸여직원들로부터 동조반기보다 경쟁의식을 갖게 했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설사 피해자가 평소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동료들의 미움을 샀다 하더라도 폭행은 물론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돼서도 안된다”며 남녀를 불문하고 폭행에 대해서 만큼은 폭행자를 준엄히 꾸짖고 항의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보통 폭행 당한 여성이 수치감을 느껴 사표를 내고 끝내버리는 것과 달리 고소까지 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인 사례. 그러나 동료 직원들은 폭행 사건에 관한 증인 서기를 거부하는 등 폭행 사건을 방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점에서 특히 여성들의 반성이 촉구되는 사건이다.

〈박혜숙 기자〉

직장내 여성 83.6%, 반말·성적 폭언에 시달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조사에서 밝혀져

여 91.11.15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오)는 최근 서울시 취업여성 6백96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여직원 폭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했다.

이 조사 결과는 그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및 법적용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여지는 남녀평등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요원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직장내에서 여직원 폭행을 경험한 비율은 반말, 성적폭언, 욕설같은 언어폭행의 경우 83.6%, 따귀, 머리 쥐어박기, 던지기 등과 같은 물리적 폭행은 24.4%, 신체적 접촉, 애무, 성기관 노출, 키스, 강간과 같은 성적폭행은 15.4%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내에서 함께 일하

는 남녀간에 인격적인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위와 같은 폭행의 경험률은 직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든 종류의 폭행에 있어서 판매 서비스직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언어폭행의 경우에는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의 순으로, 물리적 폭행의 경우는 생산직 사무직의 순으로, 성적폭행의 경우는 전문직, 사무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직장내 여직원 폭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사회의 남성우월주의적인 의식이 여성을 단지 희롱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러한 남성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직장내에서건 사회적으로건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여직원 폭행은 계속 재발되는 것.

〈근로여성고발창구〉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김용화(28) 간사는 “최근 들어 직장내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법안에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악습은 계속될 것”으로 지적하면서 “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수치심으로 인해 그런 사실을 감추려

하지만, 오히려 실추된 자신의 권리를 보호,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또한 김 간사는 여성폭행의 전문고발창구나 상담실의 앞으로 더욱 많이 생겨야 한다면 남성우월주의나 여성비하 의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의식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순 기자〉